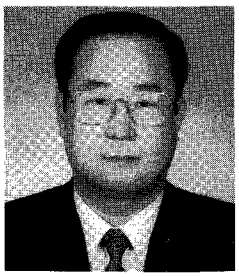
우리나라 오리산업의 세계적 위치와 국제경쟁력



이 상 진
농림부 국제농업국 통상협력과
수 의 사 무 관

1. 머리말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일정에 따라 품목별로 개방될 당시 우리는 과연 어떤 품목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일까? 어떤품목을 국제 경쟁력강화 품목으로 선정하여 육성할 것인가? 얼마 만큼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하며, 우리축산농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한 번 살펴보자. 그 어느 품목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분명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을 아직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소용돌이를 정확히 보면서 자기나름대로의 경영철학을 다지면서 축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축산인도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이후 부터는 세계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우리나라내의 수급에 따른 가격의 흐름을 본다면 퇴출의 대상이 될것이다. 이런 퇴출을 당하지 않게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품목별로 세계속의 그 품목의 위치를 비교분석하여 보아야만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자기자신을 지키는 유능한 경영자가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바탕아래 오늘 필자는 대체적으로 빨리 1991년도에 수입개방이 확정되어 세계각국

으로부터 수입된 오리고기의 수입실태와 세계의 오리사육두수의 변화내용, 그리고 우리나라 오리산업의 변천추이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한다.

2. 오리산업이란?

필자는 서두에서 "오리산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흔히들 축산업을 일컬어 경종농업에 부가되어 몇마리의 가축을 사육하는 부업농으로 우리 축산을 보아왔다. 그러나 분명 말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업농의 형태는 이미 살아진 지 오래되었다. 필자가 말하건데 1976년도를 전후하여 부업농의 형태는 살아지고 전업농 즉 축산업이라는 새로운 단어아래 품목별로 산업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왜 1976년도 전후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는 분명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한우를 이용한 경종농업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종농업의 수단으로 이용된 소가 1976년을 전후한 농기계의 전면적인 보급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그 요인이나 방법은 달리하지만 오리산업도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1년도의 수입자유화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말하자면, 국제경쟁력을 위한 오리농가의 자구책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오리산업은 부업농에서 전업농으로 전환되는 품목중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계라는 품목의 그늘아래 가려져 있던 오리산업이 부화업, 육계업, 종계업, 도계업, 오리털 및 오리육 가공업, 판매업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제는 계열화 생산체제로의 발전을 위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3. 세계 오리산업의 발달추이

자기자신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는 경쟁상대가 되는 산업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 1991년 오리고기의 수입자유화 이후 우리 오리산업은 이제 국제적인 상황아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 오리산업이 세계속에서 어떤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보자. 먼저, 전세계 오리사육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 전세계 오리사육두수의 변화추이

전세계의 오리사육두수는 1997년말현재 736백만수로 1989~1991평균 사육두수 516백만수보다 42.6%가 증가한 것으로 "FAO Production yearbook Vol.51-1997"에는 기록하고 있다(표1).

표1. 전세계의 연도별 오리사육두수 변화추이

(단위 : 백만수)

구 분	1989~1991 평균	1995	1996	1997	증가율 (1997/1989~1991)
사육두수 (증가율)	516	710 (7.52%)	735 (3.52)	736 (0.10)	42.6% (6.09)

세계의 오리사육두수 연평균증가율은 과거 10년동안 6.09%로서 상당히 높은 증가율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1995년 이전의 평균증가율 7.52%와 1996년 이후 증가율 2% 수준

과 비교시 1995년 이전에는 오리산업의 발전속도가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승세의 둔화는 국제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지 타산문제로 이어져 사육두수의 조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할것이다.

2) 대륙별로 본 오리산업의 발전추이

상기에서 언급한 1997년도 오리사육두수 분석내용을 대륙별로 살펴보자.

전세계 오리사육두수 736백만수중 87.2%인 642백만수가 아시아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나머지 대륙은 유럽의 51백만수, 북아메리카의 15백만수로 나타나고 있다(표2).

대륙별 증가율에서 단연 돋보이는 부분이 아시아 대륙일 것이다.

아시아대륙은 중국을 중심으로 그 발전속도가 빨라 1989~1991년의 441백만수에서 1997년도에 642백만수로 45.5%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년평균 증가율 20.9%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세계 년평균 증가율 7.52%보다 많이 상회하는 것으로 주목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다른 대륙은 그 증가율이 미미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그리 우려할 것은 못되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대륙의 오리사육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점을 미루어 볼때 아시아 대륙의 오리사육두수와 가격 변화내용을 예의 주시하면서 평가작업을 계속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표2. 대륙별 연도별 오리고기 사육두수 변화추이

(단위 : 백만수)

구 분	1989~1991평균	1995	1996	1997	증가율(1997/1989~1991)
아프리카	13	14	15	15	15.4
북아메리카	14	15	15	15	7.1
남아메리카	9	12	12	12	33.3
아 시 아	441	608	633	642	45.5
유 럽	39	60	59	51	30.7
오세아니아	-	1	1	1	-

※ 1995년이후의 사육두수는 구소련 국가의 오리사육두수가 유럽, 아시아 국가로 분산편입됨

3) 주요국가별 오리사육두수의 변화내용

세계에서 오리를 제일 많이 사육하는 국가는 어느나라일까? 중국이 제일 많은 오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오리사육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의 경우 7.5%, 베트남 10.8%, 인도네시아 1.2%, 프랑스 3.6%, 태국2.4%로 나타나고 있다

표3. 오리사육두수가 높은 상위 7개국의 사육두수 변화추이

(단위 : 백만수)

구 분	1989~1991평균	1995	1996	1997	년평균증가율(1997/1989~1991)
중 국	324	463	483	493	7.5 %
베 트 남	25	43	44	44	10.8
인도네시아	25	27	27	27	1.2
프 랑 스	16	20	20	20	3.6
말레이지아	13	13	13	13	-
태 국	18	19	21	21	2.4
우크라이나	-	20	19	14	-

4. 우리나라 오리산업의 발달추이

우리나라 오리산업은 그 규모면에서나 가공, 소비, 유통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그 주변 여건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오리산업의 발전내용은 1991년 수입자유화 이후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수입자유화에 따라 저렴한 외국산 오리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면서 국내 오리사육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외국오리고기의 수입자유화가 우리 오리산업을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오리사육농가의 자구책이 오늘의 우리 오리산업을 일정한 수준으로 올리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경오리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가공기술, 요리기술의 발달로 이어져 그 발전의 속도는 가속도를 가져다 주는 현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왠만한 곳을 가면 오리고기 전문 음식점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오리고기 전문 음식점은 과거 전통적으로 가공,요리하던 패턴을 뛰어넘어 그 요리방법도 다양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오리 사육두수의 변화를 살펴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1) 연도별 사육두수의 변화

연도별 우리나라 오리사육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오리사육두수는 1998년 6월 현재 3,352천두로 14년전의 689천두보다 무려 3.8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도별로 사육두수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주의깊게 살펴보면, 1985년부터 수입자유화 이전인 1990년 말까지는 성장률이 비교적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급신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3).

미루어 짐작컨데, 1991년 수입자유화 이전의 우리나라 오리산업의 발달과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의 형성에 따라 농가소득 측면이 고려된 사육두수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1985년부터 1989년까지는 오리고기의 특별한 수요층이 창출되지 않아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사육두수가 감소하였으나, 수입자유화 이전인 1990년부터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건강식품으로 분류된 오리고기의 수요폭증으로 가격이 올라감에 따른 사육두수의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표4. 연도별 우리나라 오리사육두수 변화추이

(단위 : 천수)

연도별	사육두수	연도별	사육두수
1985	689	1992	1,045
1986	827	1993	1,032
1987	586	1994	1,698
1988	502	1995	2,357
1989	596	1996	3,465
1990	716	1997	2,709
1991	1,187	1998. 6	3,352

1991년도에 오리고기의 수입자유화가 되면서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사육두수가 1993년까지 매년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수입자유화에 따른 중국산, 태국산, 미국산, 프랑스산 오리고기가 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증가세에 힘입어 사육두수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다시 평가한다면 2가지의 요인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첫번째가 수요의 급성장에 따른 공급의 부족 현상을 말할 수 있다.

예컨데,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오리고기 소비는 부산 동래 및 광주 등 일부지역에 한정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 충남권으로 북상하여 서울, 경기지역에서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의 급성장에 따른 공급의 부족으로 보여진다.

그 두번째가 1991년 수입개방에 따라 중국산, 태국산 오리고기의 다양한 형태로의 수입에 따른 소비형태의 변화가 소비를 촉진시킨 결과가 아닌가 평가하여 볼 수 있다.

2) 사육규모의 변화측면에서 본 오리산업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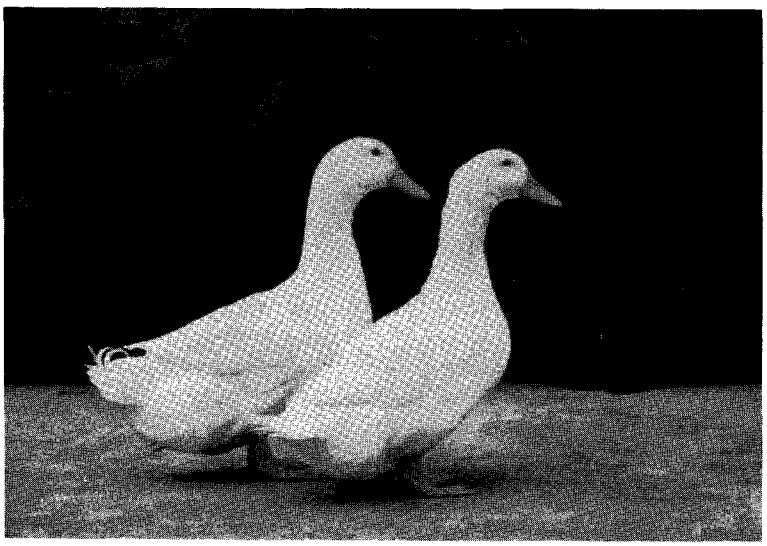
우리나라 오리산업은 사육규모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이전까지는 전업농으로의 사육규모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표5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1년도 수입개방후 우리나라 오리의 농가당 사육두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1998년 6월 현재 농가당 374마리를 사육하는데 이는 개방이전인 1990년의 사육두수 82마리보다 3.6배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표5. 연도별 우리나라 오리사육두수 변화추이

(단위 : 수)

구 분	사육두수(A)	사육호수(B)	호당 사육두수(A/B)
1985	688,988	32,308	21
1986	826,665	30,570	27
1987	585,912	23,683	25
1988	502,358	14,638	34
1989	596,315	13,223	45
1990	716,871	13,804	52
1991	1,188,655	14,522	82
1992	1,045,003	12,706	82
1993	1,031,927	9,861	105
1994	1,698,041	8,317	204
1995	2,356,903	9,485	248
1996	3,464,872	8,624	402
1997	2,709,431	9,028	300
1998. 6	3,352,338	8,971	374

이러한 사육두수의 급격한 증가를 사육농가



숫자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자.

사육농가는 1985년도에 32,308농가에서 1998년 6월 현재 8,971농가로 2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감소현상은 농가별 가격경쟁에서 살아남은 농가가 있었던 반면, 가격경쟁에서 뒤진농가는 자연이 도태되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그대로 지켜졌다고 보아진다.

일정한 사육규모을 유지하면서 비용의 절감, 경쟁력의 확보를 이룬농가는 현재 그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농가는 계속적으로 도태되어가는 연속선상에 우리나라 오리산업은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요한 표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품목이 수입개방의 시기와 관련하여 국제경쟁력을 갖는 시기를 평가하여 보면, 수입개방후 2~3년이 경과하면 도태산업으로 가느냐 성장산업으로 가는냐가 결정되는데 우리의 오리산업은 1991년 경과후 3년이 경과한 1994년부터 성장산업으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오리산업계의 자구적인 노력과 정부의 관심, 소비수요의 급신장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측면에서는 종오리의 확보, 품질의 강화, 규모의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서 살을 깍는 노력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일어나 앞으로 오리고기의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할것으로 필자는 본다.

5. 그간의 오리고기의 수입실태

1991년 1월 1일자로 오리고기가 수입 개방된 이후 우리나라에 오리고기를 수출한 국가는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국, 중국, 프랑스, 베트남, 태국, 일본, 대만 등 7개 국가이다. 이들 국가가 8년동안 우리나라에 수출한 오리고기량은 33,030톤이다.

그 중에서 제일만은 량을 수출한 국가는 중국으로 총수입량의 73%인 24,113톤을 수출하였으며, 그 다음이 태국으로 15.5%인 5,057톤이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량인 2,164톤,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1,211톤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의 형태을 보면 특이한 것을 보여주는데, 수입개방 초기인 1991~1992년에는 베트남, 중국, 태국, 대만에서 주로 수입되었으나, 1993년 1월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 제정시행에 따라 작업장 승인을 받지 못한 베트남에서는 수입이 중단되었고 수출작업장 승인이 된 중국, 미국, 태국, 프랑스, 일본에서만 오리고기의 수입이 되었다.

특징적인 것중의 하나로는 1997년 12월 홍콩에서 사람에 문제된 가금인푸루엔자(H5N1) 때문에 중국산 오리육의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그 상당물량이 태국, 미국으로 수입선이 변화하게 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1997년도에 수입된 중국산 6,130톤, 태국산 210톤, 미국산 270톤 등 6,600톤 수준의 수입량에서 1997년 12월말 중국산이 금수됨에 따라 중국산 오리고기의 수입선이 다른 나라로 전량 이행될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일부의 물량만 중국산 월 500톤 수준에서 태국산으로 월 150톤 규모로 한정하여 대체되고 나머지는 국

내산으로 충당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이것이 수출 한계 대체량으로 눈여겨 볼 만하다.

표6. 오리고기 수입실태 (단위 : 톤)

구분	미국	중국	태국	프랑스	대만	베트남	일본	계
1991	117	228	517		299	122		1,283
1992	114	1,203	840		161	1,471		3,789
1993	107	713	1,280		12	571	10	2,693
1994	133	2,936	371	1				3,441
1995	136	4,642	143					4,921
1996	218	7,966	183	1				8,368
1997	270	6,134	211					6,615
1998.11	116	291	1,512	1				1,920
계 (점유율)	1,211 (3.7%)	24,113 (73.0%)	5,057 (15.3%)	3 (-)	472 (1.4%)	2,164 (6.6%)	10 (-)	33,030 (100%)

아뭏튼, 앞으로 중국산 오리고기의 수입재개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오리산업은 다시 많은 변화를 보여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 오리산업이 그간에 갖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여 조금만 더 경쟁력을 갖춘다면, 최근의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의 상승, 우리나라 오리고기의 품질개선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도 상승 등을 미루어 볼 때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는 것이다.

6. 맺음말

우리나라의 오리산업이 세계속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위치에 있는가을 살펴보았다.

분명한 것은 1991년도에 오리고기가 수입자유화된 이후에 우리 오리산업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농가당 사육두수의 증가면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리산업이 다른 축산업에서 보여주는것과 같이 분업화되어 종오리업, 부화업, 육계사육업, 가공업, 판매업, 식당업 등으로 전문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분야별 업종의 성공여부는 국제사회의 오리 사육규모와 가격의 경쟁력 차원에서 깊이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국제경쟁력의 정도를 감안한 가격의 흐름을 평가하여 보자.

국제가격을 정육기준으로 비교분석하면, 중국산이 제일싸서 1996년도에 도착기준 가격으로 kg당 2.1~2.3불로 형성되고 1997년도에 2.2~2.3불로 상승하고 1998년도에는 중국산이 수입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는 할수 없으나,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태국산 오리고기의 수입가격을 평가하여보자, 1996년도에 2.7불의 수입가격이 1997년도에 2.2불로 하락하였다가, 1998년 9월 이후에는 3.05불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산은 1996년도에 2.8불에서 1997년도 2.9불, 1998년 3.02불대로 형성되고 있다.

이것을 현재의 환율로 산정하여 보다면, 중국산은 정육 kg당 3,000원 수준, 태국산은 3,600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관세가 제외된 가격으로 관세를 포함할 시 약간 높아질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국산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오리고기의 경쟁가능한 수준을 보면, 앞으

로 중국 경제성장율의 흐름과 위안화의 평가절하 여부 및 우리 환율의 평가정도에 따라 오리 수출가격도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이러한 요인도 면밀히 분석하면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방화에서 우리나라 오리산업의 발전방향은 무엇이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첫째로, 이제 우리는 오리산업을 보는 시각을 국제사회로 돌려야 될 것이다. 중국, 태국, 미국, 베트남, 프랑스의 사육형태, 소비수준, 사육두수의 변화, 식습관 즉 요리의 형태 등을 분석하고 무역에 따른 가격의 형성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형성되고 있는가를 각종의 채널을 통하여 분석하자.

둘째로, 우리 오리산업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분야별 분업화 및 전문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종오리 사육에서부터 판매업까지 각자가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 특수한 전략을 갖추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전체를 보는 시각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종오리 생산농가는 사육두수의 조절과 함께 개량의 속도를 가속화하여야만 하여야 할 것이다. 부화업를 영위하는자도 부화율의 증가 및 육계사육일령의 단축을 위한 병아리 생산으로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여야 될것으로 보며, 종오리업, 부화업을 영위하는 자는 계열의 주체로서의 역할수행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육농가는 가족단위로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축사의 자동화 등 시스템의 도입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질병의 사전예방 체계구축, 판로의 개척에 의한 출하시기의 조절이 감안된 계획적인 생산 등이 고려되어 출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공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자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품의 개발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살아움직이는 산물이다.

살아 움직이는 산물의 마음을 사로잡는자 만이 타 축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을 조망해보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던 지난 1990년대초 수입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오리고기의 소비가 급신장하여 국내 오리가격의 상승을 보여주었던 현상을 눈여겨 보아야 하며, 이러한 현상이 어떤 형태로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평가하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그간의 오리산업의 성장을 눈여겨본바, 수입개방에도 불구하고 성장산업으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여 본다.

앞으로, 우리의 경쟁국가는 역시 중국으로 중국의 사육두수의 변화, 가격의 동향 등을 분석하여 보아야할 것이나,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형태의 변화, 국민소득의 증가, 환경문제 등의 대두로 오리고기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노력이 가속화 된다면 우리나라 오리산업도 결코 세계속에서 뒤지는 산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양계